

건강한 삶을 위하여

의료현실 짚어보기

건강한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건강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병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으로 얼마나 안녕한가에 있다. 즉, 건강한 사회가 되어 그 안의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을 살펴보고 다시 한번 건강한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이한센
아트메디 피부·성형외과 원장

비현실적인 의료수가

원래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돌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은 의사를 의지하게 되었고 의사는 마치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었다. 그러나 현대의 의사들에 관하여 말을 하자면 사정은 크게 달라진다.

고혈압, 당뇨, 비만, 만성두통, 소화불량 등 국민 대다수가 앓고 있는 가장 흔한 병들에서조차 완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진통제가 간을 상하게 하고 보약이 신장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암으로 사망하는 것과 항암치료 후유증으로 사망하는 비율, 정신과에 입원하는 숫자와 심해지거나 차도가 없어 퇴원하는 숫자가 비슷하며 의사들은 비현실적인 진료수가 때문에 점점 비보험 항목, 이를테면 라식, 수면내시경, 관절경 수술, 미용성형 등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환자의 건강, 누가 맡아야 할까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등 공들여 전문의가 되고서도 매일 같이 보는 환자는 90%가 감기환자이고 나머지가 소화불량, 고혈압, 당뇨 정도이다.

일 만원도 안되는 진료보수로 의원을 경영하자니 매3분 간격으로 환자를 보아야 하고 100병상의 종합병원보다도 그 맞은 편에 있는 약국 수입이 더 크

다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의 특색이다. 이는 정상적인 의사, 환자간의 관계 형성을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자들의 건강은 누구에게 맡겨야 하는 것인지 그야말로 공황상태인 것이 이 나라 의료의 현 주소이다. 이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굳이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으나 현대사회에서의 정치는 우리의 생활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굳이 그 논의를 피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때문에 선거 참여도 장려를 하는 것이고 국회의원 바로 뽑자는 얘기들도 하는 것이다.



건강한 사회일 때 건강한 삶이 이루어진다

‘건강한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건강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건강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병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포함한다고 국제 보건 기구 현장에 나와있다. 따라서 한사람의 건강은 그 사회와 떼어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바꾸어 말하면 사회의 건강이 개인의 건강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고로 사회의 문제에 관해 논의하는 것 또한 개인의 건강문제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것임은 너무도 자명한 것이다.

현 의료계 내에서 비 보험 항목과 허위청구, 과다진료, 미용성형의 난무 등을 하나의 근시안적인 눈으로 피상적인 폼하만을 일삼지 말고 이러한 세태와 흐름의 이면에 있는 의료보험법 및 의약분업의 대대적인 수정과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감기처럼 단순한 질환은 본인이 전액을 부담토록 하고 백혈병같은 질환이야말로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 아닌가.

대부분의 개인 의원들이 감기 환자를 병원의 주수입으로 삼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비난을 받기에 충분한 것일지도 모른다. 어차피 의사가 의사답게 살기 힘든 것이 지금 한국의료의 현실이라면 의사들이 그래도 바른 소리를 내는 데에 힘을 합쳐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더욱이 미국에서 한 환자 당 한 시간씩 진료를 하던 필자로서는 지금의 한국의 의료현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보험도 좋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회보험은 그 사람 치료비의 절반을 넘지 않는 선에서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나라와 미국에서처럼 병원 과다 방문과 허위 청구 등의 황당한 부작용을 막을 길이 없을 것이다.